남녀 고교생이 이성교제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성적 폭력*

Psychological and Sexual Violence in Dating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교 수 김 용 미
교육대학원 김 현 옥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 Kim, Yongmi
Graduate Student : Kim, Hyon-ok

〈목 차〉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고찰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ynamics of psychological and sexual violence in dat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Subjects consisted of 1,205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1,092 respond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90.6%).

For psychological violence, 13.3%(n=145) reported to have such experiences with a dating partner at least once or more. The most frequently used forms of violence were shouting, insulting language and behaviors, and blaming for a physical appearance. There were no sex differences in frequency of psychological viol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as an aggressor or a victim. Responses of victims were mostly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and trying to forget it.

For sexual violence, 27.8%(n=303) was found to have such experiences in a dating scence at least once or more. Hugging and kissing, close contact of parts of body, and gazing at parts of body were most frequently used forms. Responses of victims

* 이 논문은 2001년 원광대학교 연구비를 지원 받았음.

were pretending not to notice it and responding in the same way. There were significantly more male aggressors of sexual violence than females, but no sex difference in the number of victims.

Those who reported to have experiences of violence were compared to the counterparts who had no experience in attitudes toward violence between dating partners and married couples, experiences of violence in childhood, school violence, and observations of violence between parents. Those with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reported to have significantly more experiences of violence in childhood and school, and parental violenc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ion were made in regard to the need for development of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and for welfare programs for adolescents in community.

◆ key word: 교제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청소년
(dating violence, psychological violence, sexual violence, adolescents)

Ⅰ. 서 론

인간 발달의 단계상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도기이다. 이때는 신체적 발달과 성적 성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지적, 정서적 측면에서도 커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며, 청소년들은 이 시기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정옥분, 1998).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이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발달이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이성에 대한 동경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이다(원대식, 1980). 청소년기에는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대인간 기술을 향상시키며 자기성찰과 평가의 기회가 된다. 또한 이성교제는 즐거움과 오락, 사회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친밀감과 자아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해 주며 궁극적으로는 배우자 선택의 기능을 도와준다(한국청소년연구, 1996).

최근 서구 사회의 성 개방 풍조가 유입되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행동기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또한 대중 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과 성의 상품화에 따라 이성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교제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가 소수의 문제 청소년에게 해당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이성교제는 중고생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또한 연소화 하는 추세이다(박성정,1996; 박소영, 1998; 신상목, 1986).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호기심이 구체화되고 이성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촉진되어 대인 관계 기술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서 학업 충실도의 저하, 용돈 부족과 같은 경제적 부담, 성적 충동과 성적 욕구의 조절, 교제 폭력의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교제 폭력(dating violence)은 결혼 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부 폭력(spouse abuse)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주목하게 된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성 교제 단계에서 폭력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혼전 단계의 폭력적 상호작용의 습관이 지속되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김용미, 1999; 김용미 · 김현옥, 2000; 김정란 · 김경신, 1999; 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yod, 1982; Makepeace, 1983).

교제 폭력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1년에 발표된 Makepeace의 연구가 시발점이었고, 국내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졌다(김예정, 1993; 김예정· 김득성, 1999;

김용미, 1996a, 1996b, 1999; 김용미 · 김현옥, 2000; 김정란 · 김경신, 1999; 이영숙, 1998). 국내 연구는 대부분 이성교제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소수이다(김용미 · 김현옥, 2000). 이성교제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성 친구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교제 폭력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제 폭력의 종류도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교적 많이 연구된 것이 신체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성적 교제 폭력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남녀 고교생을 대상으로 이성 교제 중의 심리적, 성적 폭력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심리적, 성적 교제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과 전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폭력 사용에 대한 태도와 경험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1. 남녀 고교생이 이성교제 중 경험한 심리적 폭력은 어떠하며,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2. 남녀 고교생의 이성교제 중 경험한 성적 폭력은 어떠하며,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3. 폭력에 대한 태도, 경험 면에서 심리적, 성적 폭력의 유경험 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어떻게 다른가?

Ⅱ. 선행 연구 고찰

1. 교제폭력의 개념과 종류

교제 폭력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dating violence', 'dating aggression', 'courtship violence', 'courtship abuse', 'premarital aggression'등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Carlson(1987)은 'dating violence'를 혼전단계에서 낭만적 사랑을 하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김용미(1999)는 이를 '혼전 폭력' 이라고 표현하고 미혼의 남녀가 혼전 단계에 교제와 구혼과정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경험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모두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O'Keefe (1997)는 'dating violence'란 미혼 남녀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심리적, 성적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체적, 비신체적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 가운데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야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는 신체적 힘이나 도구의 사용을 의미한다(Sugarman & Hotating, 1989). 심리적 폭력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등 상대방의 자아개념을 손상시켜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언어적 공격과 상대방의 물건 부수기,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의 비언어적 공격이 포함된다 (Stets, 1990). 성적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심리적, 언어적 위협이나 신체적 힘을 사용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부터 성교를 강요하거나 또는 성교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Straus, Hamby, McCoy, & Sugarman, 1996). 이 연구에서는 교제 폭력이란 미혼 남녀가 교제의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교제폭력을 신체적 폭력으로 좁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을 촉발하는 것과 같이 폭력 유형은 상호 연관되어서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의 세 가지 유형의 폭력 현상을 골고루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교제 폭력에 대한 선행연구 가운데 신체적 폭력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미 보고되었으므로(김용미 · 김현옥, 2000),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성적 폭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성 교제 중 발생하는 심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

1) 심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의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연구대상과

범주에 따라 69%~97.9%의 응답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Stets와 Henderson(1991)의 연구에서는 약 90%의 남녀 응답자가 이성교제 중 언어적 공격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김예정과 김득성의 연구(1999a)에서는 대학생 응답자의 68.6%가 심리적 폭력의 가해자였다고 보고했다. 김정란과 김경신의 연구(1999)에서는 대학생 응답자의 97.9%가 심리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이성 교제 중 심리적 폭력의 경험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폭력의 유형은 상대에게 소리지르기, 비난하기, 욕설과 같은 언어적 유형과 상대에게 물건을 던지려고 위협하거나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의 비언어적 공격이 있다(Stets, 1990). 심리적 폭력의 피해자들은 이것이 신체적 공격만큼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즉 심리적 폭력은 곧바로 신체적 폭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의 전조(前兆)로 간주된다(김예정 · 김득성, 1999a ; Stets, 1990).

2) 성적 폭력

교제 단계의 성적 폭력은 힘을 사용하거나 위협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 관계를 하는 것은 물론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노골적인 피부접촉, 음담패설이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국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기(26%), 노골적 피부접촉(26%), 강제로 데이트 요구하기(26%), 음란물을 보여주기(9%), 강간 등 직접적 폭력행위(1%) 등의 성폭력 경험이 보고되었다(동국대 여학생부처, 1995). 이혜은의 연구(1998)에서는 응답자 여대생의 91.4%가 일반적 성적 괴롭힘, 60.7%가 유혹적 성적 괴롭힘, 18.6%가 폭력적 성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CTS Ⅱ를 사용한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의 비율이 낮아진다. 김정란 · 김경신(1999)은 응답자의 광주 · 전남지역 대학생의 14.6%, 김예정 · 김득성(1999a)은 부산 · 경남지역 대학생 응답자의 22.6%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것은 CTS Ⅱ의 성폭력 문항이 직접적인 성 행동 및 관련 행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제 중 성폭력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경험보고의 비율이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 대상 해외 연구

다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겠다. 가정폭력에 관해 Swinford, DeMaris, Cernkovich, & Giordano(2000)는 미국 청소년 608명을 대상으로 1982년과 1992-3년에 걸쳐 종단적 연구를 실시했다. 사회학습이론, 프로이드이론, 일탈이론을 토대로 아동기의 가혹한 훈련과 성인기 이성관계의 폭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아동기에 가혹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성인기 된 후 배우자나 교제 파트너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문제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성인기에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높았다. Price와 Byers(1999)는 중1, 중3, 고2의 남녀 청소년 823명을 대상으로 교제 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했다. 연구결과 남녀간 성 차가 밝혀졌는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폭력사용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고교생(16-18세)를 대상으로 한 Jackson, Cram & Seymour(2000)의 연구에서는 교제 폭력의 경험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의 악몽, 특히 성 폭력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Kreiter, Krowchuk, Wood, Sinal, Lawless & DuRant(1999)는 미국의 청소년 20,724명을 대상으로 교제폭력의 성차(性差)를 연구했다. 여학생의 경우 교제폭력의 위험요인은 남자 친구의 수, 자살 시도 횟수, 술이나 마약 사용여부, 강제 성교, 음주 운전자와 동승하기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위험 요인은 남자 친구의 수, 강제 성교 경험, 신체적 폭력의 피해 횟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교제 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서 교제 폭력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Stith, Rosen, Middleton, Bush, Lundeberg, & Carlton(2000)은 1980년-1997년 사이에 발표

및 미발표된 논문, 저서, 학회발표 논문 등의 160여 편의 문헌을 검색해 메타 분석했다. 배우자 학대가 세대간 전이(轉移)되는데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 동거나 결혼관계에서 배우자 학대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것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은 또한 성 차도 밝혀냈는데 즉 남아는 성인기에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여아는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부모 사이의 폭력적 관계를 목격하면서 (때리는 아버지, 맞는 어머니) 동성의 부모 역할을 학습하기 때문에 남아와 여가가 각각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자라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1,205명이었다. 이들은 대도시(서울 특별시, 광주 직할시, 대전 직할시)에 있는 6개 고교 학생 400명, 중소도시(전주시, 군산시, 정읍시)에 있는 6개 고교 학생 400명, 농어촌 지역(전북 부안, 신태인, 고창, 함열)에 있는 8개 고교학생 405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유효한 1,092부가 자료분석에 포함되었다(90.6%). 성별은 남학생이 45.6%, 여학생이 54.4%로 여학생이 다소 많았다. 학년은 1, 2, 3학년을 거의 동수로 포함시켰다 (〈표 1〉참조).

2. 조사 시기와 방법

이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는 2000년 6월 중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를 다소 수정, 보완했다. 본 조사는 2000년 7월중 약 2주에 걸쳐 각 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동일한 설명문, 소요시간 등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답하게 하고 즉석에서 회수하게 하였다.

3. 조사 도구 및 자료 분석

이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와 참고 문헌 등을 기초로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설문지는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종교, 부모의 직업 및 학력, 수입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는 교제 폭력에 대한 태도와 경험을 다루고 있다. 교제 커플 및 부부 사이의 폭력 사용에 대한 태도(6문항), 성장기 가정에서의 폭력경험(4문항), 학교 생활 중 폭력경험(3문항), 부모 사이의 폭력 목격(4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1-7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을 수용, 용인하는 태도를 가지며 폭력의 경험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 부분은 교제 폭력 중 심리적, 성적 폭력의 경험 여부, 폭력 유형별 경험의 빈도, 폭력에 대한 행동적, 감정적 반응을 다루고 있다. 심리적 폭력은 CTS Ⅱ (Conflict Tactics Scale Ⅱ, 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1996)에 포함된 8개 문항을 사용했고 Cronbach α 는 .81을 나타냈다. 성적 폭력은 CTS Ⅱ의 문항이 우리 나라 고교생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선행 연구(공미혜, 1995; 김성희, 1998; 한국 성폭력상담소, 1993)를 참고로 7문항을 개발했다. 성적폭력 척도의 Cronbach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 χ^2, t-test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이 연구에 포함된 응답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은〈표 1〉에 나타나 있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1/3씩 고루 표집했고 학년도 1,2,3학년이 비슷한 비율로 포함되었다. 성별은 여자가 54.4%로 남자보다 조금 많았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1)]

(n=1,092)

변 수	구 분	n	%
지역	대 도 시	352	32.2
	중소도시	364	33.3
	농 어 촌	376	34.4
성별	남 자	493	45.6
	여 자	592	54.4
학년	고 1	355	33.0
	고 2	344	31.9
	고 3	378	35.1
종교	기독교	421	39.0
	천주교	109	10.1
	불 교	191	17.7
	무 교	344	31.9
가족 수입	100만원	168	15.9
	101만원~200만원	340	32.2
	201만원~300만원	174	16.5
	301만원~400만원	51	4.8
	401만원~500만원	24	2.3
	501만원이상	49	4.6

1) n 〈 1092인 경우는 missing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2. 심리적 폭력의 경험 실태

이성교제 중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1,092명 가운데 13.3%(145명)의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1) 심리적 폭력의 유형과 남녀 학생의 비교

심리적 폭력의 유경험자 145명을 대상으로 가해자별, 피해자별로 경험한 폭력의 유형 및 남학생, 여학생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심리적 폭력의 유형은 고함이나 날카로운 소리지르기(120명),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하기(106명)로 타나났고 그 다음이 외모에 대해 비난하기(59명), 앙심품은 말하기(53명)의 순서로 나타나서 언어적 폭력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가해자인 경우 각 유형별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 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경우에도 역시 남녀 학생간 의미있는 성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폭력의 유형이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 특히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있을 수 있는 언행이며(소리지르기, 모욕적 언행, 외모에 대한 비난, 앙심품은 말하기 등) 남자나 여자 공히 비슷한 수준의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 심리적 폭력에 대한 반응과 남녀 학생의 비교

이성 교제 중 상대방이 심리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로서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남녀 학생이 어떻게 다른지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는 양보하며 대화로 해결함이 59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잊으려고 노력함(40명, 27.6%), 헤어질 것을 제의함(38명, 26.2%)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남녀 학생간 반응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남학생은 참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양보하며 대화로 해결함, 주로 상

〈표 2〉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경험한 심리적 폭력의 유형과 남녀 학생의 비교[1)]

(n=145)

심리적 폭력의 유형	합계	가해자				피해자			
		남	여	계	X^2	남	여	계	X^2
		n(%)	n(%)			n(%)	n(%)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하기	106	37(55.2)	30(44.8)	67	1.5	17(43.6)	22(56.4)	39	0.4
고함치거나 날카로운 소리 지르기	120	37(45.7)	44(54.3)	81	0.2	18(46.2)	21(53.8)	39	0.0
화가 나서 방문이나 집 앞에서 발을 세게 구르기	46	19(61.3)	12(38.7)	31	2.3	5(40.0)	9(60.0)	15	0.9
앙심 품은 말하기	53	17(50.0)	17(50.0)	34	0.0	8(42.1)	11(57.9)	19	0.3
외모에 대해 비난하기	59	25(55.6)	20(44.4)	45	1.1	5(35.7)	9(64.3)	14	0.9
상대방의 물건 부수기	23	9(52.9)	8(47.1)	17	0.2	2(33.3)	4(66.7)	6	0.5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22	7(53.3)	6(46.7)	15	0.2	5(71.4)	2(28.6)	7	1.5
상대방을 때리려하거나 물건을 던지려고 위협하기	26	10(52.6)	9(47.4)	19	0.1	3(42.9)	4(57.1)	7	0.1

1)복수응답하였음

〈표 3〉 심리적 폭력의 피해자가 보인 반응 및 남녀 학생의 비교[1)]

(n=145)

유 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X^2
	n	n(%)	n(%)	
양보하며 대화로 해결함	59	39(66.1)	20(33.9)	12.1***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함	40	21(52.5)	19(47.5)	0.2
헤어질 것을 제의함	38	11(28.9)	27(71.1)	8.8**
문제 삼지 않고 대충 넘어감	26	14(53.8)	12(46.2)	0.3
친구로부터 위로 받음	25	10(40.0)	15(60.0)	1.1
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	24	21(87.5)	3(12.5)	17.2***
똑같은 방법으로 괴롭힘	16	2(12.5)	14(87.5)	9.8**
먼저 소리쳐서 말을 중단시킴	16	5(31.3)	11(68.7)	2.4
주로 상대에 말을 따름	12	11(91.7)	1(8.3)	9.5**
문제에 대해 의논 회피	6	5(83.3)	1(16.7)	2.9
상대방을 자주 위협함	6	4(66.7)	2(33.3)	0.8
다른 일에 심취함	5	4(80.0)	1(20.0)	2.0
발을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음	4	2(75.0)	1(25.0)	0.0
부모님에게 이야기함	1	1(100)	0	1.0
상담기관에 찾아감	0	0	0	0.0

1) 복수응답하였음

대의 말을 따름 등의 대처방식이 여학생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주로 인내, 양보, 순응의 자세를 가지고 타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학생은 똑같은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헤어질 것을 제의한다는 반응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아서 감정적이고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반응의 차이는 흥미롭다. 남학생은 마치 약자의 입장에서 타협하고자 하는데 비해, 여학생은 상대방을 똑같이 괴롭히거나 절교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여학생은 폭력은 피해자가 되기 쉬우므로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성적 폭력의 경험 실태

성적 폭력의 7가지 유형에 있어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7.8% (303명)로 나타났다.

1) 성적 폭력의 유형과 남녀 학생의 비교

성적 폭력의 유경험자 303명을 대상으로 가해자별, 피해자별로 경험한 폭력의 유형 및 남녀간의 성차를 비교한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이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보고된 성적 폭력의 유형은 껴안기 및 키스하기(330명), 신체 일부의 밀착 접촉(286명), 신체의 일부 쳐다보기(25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는 낮았지만 실제로 성교 강요하기라는 직접적, 공격적 폭력 경험은 가해자가 25명, 피해자가 22명, 합계 47명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와 유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 시내 여대생의 성적 폭력의 경험으로서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기(26%), 노골적인 피부접촉(26%), 강제로 데이트 요구(26%), 음란물을 보여주기(9%)와 비교해서 강간 등 직접적 폭력행위는1%가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다(동국대 여학생 부처, 1995). 또한 김예정 · 김득성(1999a)의 연구에서는 부산 · 경남지역 대학생의 22.6%가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혜은(1998)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성적 괴롭힘을 경험

〈표 4〉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경험한 성적 폭력의 유형과 남녀 학생의 비교[1)]

(n=303)

성폭력의 유형	합계	가해자				피해자			
		남	여	계	X^2	남	여	계	X^2
		n(%)	n(%)			n(%)	n(%)		
신체의 일부 쳐다보기	258	113(73.3)	41(26.7)	154	55.2***	49(47.1)	55(52.9)	104	1.2
외설적 그림이나 글 보게 하기	49	19(76.0)	6(24.0)	25	8.1**	12(50.0)	12(50.0)	24	0.0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하기	127	56(68.3)	26(31.7)	82	15.5***	18(40.0)	27(60.0)	45	1.4
음담패설 하기	81	28(71.8)	11(28.2)	39	9.5**	18(42.9)	24(57.1)	42	0.5
신체 일부의 밀착 접촉	286	108(74.5)	37(25.5)	145	54.4***	70(49.6)	71(50.4)	141	0.1
껴안기 및 키스하기	330	122(70.5)	51(29.5)	173	49.7***	67(42.7)	90(57.3)	157	3.0
성교 강요하기	47	23(92.0)	2(8.0)	25	20.3***	11(50.0)	11(50.0)	22	0.0

1) 복수응답하였음

한 여대생이 비율이 91.4%, 유혹적 유형의 성적 괴롭힘이 60.7%, 폭력적 유형의 성적 괴롭힘이 18.6%로 나타났다. 이 혜은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성적 괴롭힘을 3종류로 분류했고, 가해자가 이성교제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해자와 피해자 집단을 남녀 성별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7가지 종류의 성적 폭력에 대한 가해자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훨씬 많은 가해경험을 보고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결과는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욱 공격적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피해 경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자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하고 있으나 유의한 성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회 전반적인 성 개방의 풍조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과거에 비해 여자들의 성적 관심과 적극성이 높아진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기성 세대에 비해 자라나는 청소년세대는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와 성적 개방 풍조에서 성장했으므로 더욱 민감하고 대담한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적 폭력에 대한 반응과 남녀 학생의 비교

이성 교제 상대가 성적 폭력을 행사했을 때 피해자로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남녀 성차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먼저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모르는 척 한다(105명),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한다(94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를 낸다(4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망신을 주거나 신고하기, 상담기관을 찾는 경우는 극히 낮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반응 양식에서 남녀간 성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화를 내는 경우'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높았고, 남자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서 상대에게 보복하는 반응을 보인 경우가 여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성적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는 약자의 대처법으로 보이는데 많은 여학생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답했다. 반면 자신이 당한 성적 폭력의 피해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에게 반응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를 반격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처 방법을 많은 남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심리적, 성적 폭력의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의 비교

여기에서는 2가지 종류의 교제 폭력을 경험한 집단과 무경험집단이 폭력에 대한 태도, 성장기 폭력 경험, 학교 폭력 경험, 가정에서 부모 사이의 폭력 목격 경험에서 서로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교제폭력의 유경험 집단에는 가해와 피해경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시켰다. 즉 1)이성교제

〈표 5〉 성적 폭력의 피해자가 보인 반응 및 남녀 학생의 비교[1)]

(n=303)

유 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X^2
	n	n(%)	n(%)	
모르는 척 한다	105	61(58.1)	44(41.9)	0.4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	94	72(76.6)	22(23.4)	24.3***
화를 낸다	45	4(8.9)	41(91.1)	46.8***
망신을 준다	2	4(80.0)	1(20.0)	0.0
상담 기관을 찾는다	0	0	0	0.0
신고한다	1	1(100)	0	0.8

1) 복수 응답하였음

단계에서의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 부부사이의 폭력 사용에 대한 태도가 더욱 허용적(긍정적)인 학생들이 실제 자신의 이성 교제 중 심리적, 성적 폭력의 경험이 더 많은가, 2) 성장 과정과 학교 생활에서 폭력 경험이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 자신의 이성 교제 중 심리적, 성적 폭력 경험이 더 높은가, 3) 가정에서 부모 사이의 폭력 사용을 많이 보고 자란 학생들이 실제 자신의 이성교제 중 심리적, 성적 폭력 경험이 더 많은가를 살펴보겠다(표 6).

먼저 심리적 폭력의 유/무경험 집단을 비교해 보면 두 집단은 성장기 폭력 경험, 학교 폭력 경험,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유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폭력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 가정에서 부모 사이에 오가는 폭력을 더 많이 목격했으며, 성장과정에서도 직접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하며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은 교제폭력 및 부부 폭력에 대한 태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적 폭력의 유/무경험 집단을 비교했을 때 유경험 집단이 성장기 폭력 경험, 학교 폭력 경험,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무경험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에서 폭력 경험이 더 많았고, 성장과정에서도 많은 폭력을 경험했으며, 가정에서 부모간 폭력사용을 더 많이 목격한 학생들이 자신이 이성교제 장면에서도 더 많은 성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은 교제 폭력 및 부부 폭력에 대한 태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유의할 점은, 심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의 무경험 집단은 물론 유경험 집단도 폭력 사용에 대한 태도와 경험 면에서 그다지 높지 않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교제폭력의 유경험 집단에 속한 학생일지라도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와 실제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리적 폭력 유경험 집단의 점수 범위는 6.54~11.74점이고, 성적 폭력 유경험 집단의 점수는 6.81~11.57점 사이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고교생들의 경우 이성교제 단계에서나 부부 사이에서 폭력을 사용하는데 대해 뚜렷하게 허용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중도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장기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과 학교 폭력의 경험, 부모간 폭력사용을 목격

〈표 6〉 심리적, 성적 교제 폭력의 유경험/무경험 집단의 비교

(n=1082)

		교제 폭력에 대한 태도[1] M (SD)	부부 폭력에 대한 태도[1] M (SD)	성장기 폭력 경험[2] M (SD)	학교 폭력 경험[2] M SD)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2] M (SD)
심리적 폭력	무경험집단 (n=937)	11.44(3.63)	10.81(4.29)	9.71(4.89)	5.47(2.66)	7.57(3.51)
	유경험집단 (n=145)	11.74(3.86)	10.52(5.19)	10.65(5.19)	6.54(3.07)	8.42(3.72)
	t 값	-0.93	0.77	-2.13*	-4.11***	-2.52**
성적 폭력	무경험집단 (n=779)	11.46(3.53)	10.92(4.21)	9.45(4.78)	5.14(2.42)	7.41(3.39)
	유경험집단 (n=303)	11.57(4.01)	10.40(4.54)	10.81(5.21)	6.81(3.11)	8.39(3.84)
	t 값	-0.42	1.77	-3.89***	-8.52***	-3.61***

1)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사용에 대해 허용적/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2)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경험이나 목격 경험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한 경험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이 3가지 폭력 경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주의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두 집단의 폭력 사용에 대한 태도가 중도적이며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 이유는 현재 고교생으로서 이성교제나 부부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고 여전히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이 좀더 성숙하여 가까운 인간관계에서의 폭력사용에 대한 가치가 뚜렷하게 형성된다면 중도적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분명한 태도가 표명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가 집단별로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폭력사용을 더욱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미, 1996b).

위의 결과는 폭력의 유형은 다르지만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고교생으로서 이성교제 장면에서 심리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공히 학교 폭력의 경험, 성장기 폭력 경험, 부모간 폭력사용을 목격한 경험이 무경험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성인기의 폭력 가해의 관련성을 밝혀낸 Swinford et als.(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며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기에 부부폭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 Stith et als.(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인 학교와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이 고스란히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에 그대로 흡수되어 있다가 실제 이들의 이성교제 장면에서 그대로 돌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을 체험하거나 목격한 것이 학생들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이성교제와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다시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폭력이 개인의 환경을 통해 학습되며, 폭력적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크며 지속적인지 알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학교 폭력의 경험이 많고, 성장기에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으며, 가정에서 부모간 폭력사용을 더 많이 목격한 학생일수록 자신의 이성교제 장면에서도 심리적, 성적 폭력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재학중인 남녀 고교생 1,092명을 대상으로 이성교제의 어두운 측면인 교제 폭력의 실태와 성 차를 비교해 보았다. 심리적 폭력은 응답자의 13.3%인 145명이 유경험자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심리적 폭력의 유형은 고함이나 소리지르기,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 외모 비난, 앙심품은 말 등으로 나타나 주로 언어적 폭력이 많이 오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 및 피해자로서 사용한 심리적 폭력의 빈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폭력의 피해자들은 주로 양보와 대화, 잊으려 노력함 등의 반응을 보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은 전체 응답자의 27.8%(303명)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가 높은 순서를 보면 껴안고 키스, 신체의 밀착접촉, 신체 일부를 쳐다보기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7가지 유형의 성적 폭력 중 빈도는 제일 낮게 나타났으나 성교 강요하기가 47명(15.5%)으로 보고된 점은 청소년 성행동의 지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적 폭력의 가해자는 남학생이 유의하게 많았으나, 피해자는 성 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적 폭력의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면, 모르는 척 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한다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반응에서 성 차를 보였는데 여학생은 화를 내는 것처럼 감정적이고 소극적 반응을 보인 반면, 남학생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를 반격하고 당황케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심리적, 성적 폭력의 경험자 집단이 무경험집단에 비해 폭력에 대한 태도, 성장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된 정도가 다른지 살펴보았다. 두 집단은 교제 단계의 폭력과 부부사이의 폭력 사

용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제 폭력 경험자 집단이 학교 생활에서 폭력의 경험이 더 많고, 성장과정에서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었으며, 집에서 부모 사이의 폭력을 더 많이 관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개인의 환경을 통해 폭력을 배우며, 폭력적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하며 오래동안 지속되는지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이성교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성적 폭력이 다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폭력은 이성교제 고교생 8명 가운데 1명, 성적 폭력은 3.5명 가운데 1명이 적어도 1회 이상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의 이성교제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제 단계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수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둘째, 폭력학습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다수의 선행연구가 제시한 사회학습이론과도 일치하고 있다. 교제 폭력의 경험자 집단과 무경험자 집단을 비교한 결과 경험자 집단이 학교폭력, 성장과정의 폭력경험, 가정내에서 부모사이의 폭력 목격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정과 학교라는 중요한 환경이 자라나는 청소년에도 폭력을 학습하고 대물림하는 장(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 영향이 결혼 후 부부폭력으로 연결되며 후대로 세대간 전이되고 있음을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기성세대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폭력의 심각성, 파괴성, 연속성을 절감케하고 폭력사용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가치를 심어줌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와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7월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교제 단계의 폭력을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수용하기보다, 이것이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하며 가정폭력은 법적 제재를 받는 행동임을 배워야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이성교제를 도와주고 교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청소년의 교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는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하고 폭력에 대한 뚜렷한 의식과 태도의 정립, 남녀간의 성 역할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감정표현, 대인간 갈등관리 기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Aldridge, Friedman., & Guiggans, 1993; Foshee, Bauman, Arriaga, Helms, Koch, & Linder, 1998).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폭력과 타협하지 않는 민감성, 분노와 좌절 감정의 이해와 통제, 대인간 갈등에서 타협과 양보, 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게 된다면 원만한 교우관계, 건강한 이성교제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정 교과나 인성훈련 시간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지역 사회에 청소년 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증대함으로써 건전한 교제의 장(場)이 되게 하고 억눌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충동을 건전한 문화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사회 활동을 통해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면,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나 실업계 고등학교와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포함시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전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했으나 일부 지역(경상, 강원)이 골고루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공미혜(1995).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여성학.

김성희(1998).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성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7-27

김예정 · 김득성(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 표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1(2), 127-139

김예정 · 김득성(1999a). 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Ⅰ).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김예정 · 김득성(1999b). 데이팅 관계에서 폭력집단의 특성과 신체적 폭력 발생의 맥락.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87-211.

김예정 · 김득성(1999c). 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87-202.

김용미(1996a).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김용미(1996b). 미혼 대학생의 혼전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원광대논문집 31(2), 1221-1233.

김용미(1999). 혼전단계의 폭력 : 1990년대 문헌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7(9), 129-140.

김용미 · 김현옥(2000). 고교생의 이성교제 중 신체적, 심리적 폭력 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183-194.

김정란 · 김경신(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박기하(1988). 십대의 성. 범우사.

박성정(1996).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소영(1998). 농촌 지역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성의식, 성행동과 성교육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상목(1986).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대식(1980). 고등학교 성교육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숙(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1.

이혜은(1998).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여대생의 대처 양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한국성폭력상담소(1995).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연구.

한국청소년연구(1996). 청소년 이성교제에 대한 실태 연구.

Aldridge, L., Friedman., C., & Guiggans,P.(1993). In touch with teens : A relationship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Los Angeles : *Los Angeles Commiosion on Assaults Against Woman.*

Foshee,V.A. ,Bauman,K.E., Arriaga, X. B., Helms, R. W., Koch, G.G., & Linder,G.F.(1998). An evaluation of Safe Dates, an adolescent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 45-50.

Foshee,V.A. ,Bauman,K.E., & Linder, G.F.(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 Examining social learning and social control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40-654.

Gray,H.m., & Foshee,V.(1997). Adolescent dating violence : Differences between one-sided and mutually violent profi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1),* 126-141

Jackson, S.M., Cram, F., & Seymour, F.W.(2000). Violence and Sexual coercion in high school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1),* 23-36.

Kreiter, S.R., Krowchuk, D.P., Woods, C.R., Sinal, S. H., Lawless, M.R., & Durrant, S.H.(1999). Gender differences in 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s who experience date fighting. *Pediatrics 104(6),* 1286

Makepeace, J.(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

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Makepeace, J.(1983). Life events stress and courtship violence. *Family Relations 32*, 101-109.

O · Keefe, M.(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Price, E.L., & Byers, E.S.(1999). The attitudes towards dating violence scales :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4)*, 31-375

Stets, J.E.(1990).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01-514

Stets, J.E., & Henderson, D.A.(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 40(1)*.

Straus, M.A., H AMBY, S.L., Boney-McCoy.S., & Sugarman, D.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Sugarman, D.B., & Hotaling, G.T.(1989). Dating violence :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In Stets, J.E., & Pirog-Good, M.A.,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New York : Praeger.

Stith, S.M., Rosen, K.H., Middleton, K.A., Basch, A. L., Lunderg. K., & Carlton, R.P.(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40-654.

Swinford, S.P., DeMaris, A.,Cernkovich, S.A., & Giordano, P.C.(2000). Harsh physical discipline in childhood and violence in late romantic involvements :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508-51.